귀천은 세상 아닌 내가 정하는 것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㉛ **'은애하는 도적님아' (2026)**



'은애하는 도적님아' 는 여성 홍길동 은조와 도월 대군 이열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로,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통해 얼녀와 왕족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깨닫고 신분 귀천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1500년대 말에 활동했던 허균이 지은 소설 〈홍길동전〉은 정승 홍문과 몸종 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홍길동이 차별 가득한 조선에서 의적 활동을 하며 민심을 모아 만민이 평등한 율도국을 세우는 이야기다. 홍길동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장면인데, 어머니가 천민인 탓에 신분이 서자(庶子)도 아닌 얼자(孼子)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양인 신분이기만 했어도 홍길동은 당당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은애하는 도적님아'는 여성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다. 혜민서 의녀 홍은조(배우 남지현)는 대사간 출신 홍민직(배우 김석훈)과 몸종 춘섬(배우 서영희) 사이에 태어난 얼녀(孼女)다. 그럼에도 둘만 있을 때는 아버지라 부르게 할 정도로 은조를 아끼는 홍민직은 청백리 대장에 이름을 올릴 만큼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의 인물. 왕에게 직언을 올리다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충격으로 쓰러져서 3년 동안 자리보전을 하다가 깨어나 집안 살림은 은조가 도맡고 있다.

혜민서 병자들을 돌보는 은조의 눈에 양반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절한 현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탐관오리의 수탈로 굶고 굶다 영양실조에 걸린 소작인들, 주인에게 이유 없이 맞고 실려 오는 노비들, 온갖 병에 시달리고 수없이 다쳐서 더 이상 약발조차 듣지 않는 이들.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은조는 양반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딱 그만큼만 도적질을 해서 그들의 병이 나을 때까지만 전해 주는 역할을 자처한다.

검은 옷에 백정 탈을 쓰고 밤에만 나타나는 이 의적을 향해 사람들은 '길 위의 동무', 줄여서 '길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길동의 정체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하다. 몸집이 건장한 백정이라기도 하고 온몸이 털로 덮인 괴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백 살 먹은 도사라고도 한다. 그런 소문 속에서 여인인 은조를 길동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왕인 이규(배우 하석진)의 배다른 동생 도월 대군 이열(배우 문상민)은 한량이니 망종이니 난봉꾼이니 하는 소문에 둘러싸여 산다. 그리고 소문에 걸맞게 이열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포청에서 하는 종사관 놀이. 타고난 명석함으로 잡아들인 범인만 해도 수십 명이고, 그때마다 처소의 내관과 궁녀들을 모아놓고 추리 이야기를 풀어놓는 맛으로 산다.

이열의 이런 행동들은 계획된 것이자 이규와의 약속이었다. 어릴 때 이열의 영민함을 알아본 선왕이 세자 이규 대신 이열을 보위에 앉히려는 의지를 품자, 이를 알아챈 세자가 이열에게 협박 같은 충고를 한다. "너의 총명함을 숨겨라. 절대 반짝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 네 어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후로 이열은 재밋거리나 찾아다니는 시시껄렁한 왕족으로 살아왔다.

근래 최대의 미궁인 길동 사건을 조사하던 이열은 저자에서 우연히 은조를 만난다. 대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이열과 길동의 비밀을 숨겨야 하는 은조. 그러던 어느 날 동자승이 건네는 청실과 홍실 팔찌를 받은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버린다.

영혼이 바뀌는 이야기는 보통 남녀 간에 바뀐 몸의 차이를 드러내고, 몸에 적응하는 과정에 집중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은애하는 도적님아'는 남녀 차이보다는 신분 차이에 주목한다.

드라마에서 은조와 이열은 두 번 영혼이 바뀌는데, 처음 바뀐 것은 상대의 신분 확인용. 하필 은조가 길동으로 있을 때 영혼이 바뀌는 바람에 이열은 은조가 길동임을 알게 되고, 은조 역시 이열이 실은 도월 대군임을 알게 된다.

두 번째로 영혼이 바뀌었을 때, 드라마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며 좀 더 진지해진다. 천한 신분이 겪는 핍박과 여인이 받는 설움을 체험하는 이열과 왕족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인 압박을 실감하는 은조. 이열은 본의 아니게

여성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영혼 바뀐 설정, 신분 따른 고통 보여
신분 귀천, 스스로 정한다는 메시지도
부처님, 계급 상관없이 출가자로 받아
모든 이 존중하고 집착 없이 사랑하길



'은애하는 도적님아'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KBS 공식 홈페이지

길동의 행세를 하면서 고달픈 백성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은조는 궁궐의 부패한 왕과 간신을 목격하고 조선의 암울한 미래를 깨닫는다.

그렇게 영혼이 바뀌어 각각의 신분으로 바라본 조선을 확인한 이열과 은조는 폭군이 된 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직접 반정에 가담하여 새로운 세상을 연다. 여인 홍길동의 율도국은 멀리 있는 외딴섬이 아니라 새로운 조선이었다.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연산군 때에 활동 기록이 있는 실존 인물 홍길동이 모델이다. 무관직을 지낸 홍상직의 얼자로, 소설 속 홍길동처럼 도적이긴 한데 도적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실제 홍길동은 충청도 충주 일대를 무대로 정3품 당상관을 자칭하면서 무리를 이끌고 마음대로 관가를 드나들며 도적질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홍상직의 적자이자 홍길동의 배다른 형제들이 왕실과 연결되는 실세로 떠오르면서 홍길동 무리는 단순히 도적 떼라기보다 권력과 결탁한 조직폭력배 또는 정치깡패 성격이 강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오죽하면 이들을 유교 윤리를 어긴 강상죄로 처벌했을까.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때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시오소서(연산군 6년[1500] 10월 22일)"라는 실록의 기록을 보아도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실존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소설로 만난 홍길동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통쾌함을 주는 우리 민족의 어엿한 히어로 캐릭터이고, '은애하는 도적님아'는 소설 홍길동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산군의 당시 상황과 실존 인물인 홍길동의 사정을 골고루 조합한 드라마다. 폭군인 왕 이규는 누가 봐도 연산군이고, 도월 대군 이열은 반정으로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이 된 진성 대군이다. 은조의 아버지 홍민직은 실존 홍길동의 아버지 홍상직을 연상시키며 드라마의 최대 빌런 임사형(배우 최원형)은 중종반정 때 제거된 임사홍인 셈이다.

물론 이 드라마가 역사를 재현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연산군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규가 폭군이었던 것은 사실 임사형이 연숙화의 독으로 이규를 중독시켜 나타난 증상이었음이 밝혀지고 이규는 자진해서 왕위를 이열에게 물려준다. 임사형도 처형되지 않고 자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왕이 된 이열은 아예 혼례를 치르지 않고 이규의 아들을 극진히 보살피며 다음 왕위를 잇도록 한다.

드라마의 마지막, 은조는 유배지에 있는 임사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아시겠지만 영감께서는 양반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 저와 같은 신분이 되셨지요. 해서 묻습니다. 그로 영감께서는 천것이 되셨습니까? 스스로 귀함을 내던지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귀천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천해졌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천해진 것이냐고 묻는 은조의 말에서 경전 한 구절이 떠오른다. "출생에 의해 그가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바라문이 되는 것도 업에 의해서고, 바라문이 되지 않는 것도 업에 의해서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타고난 계급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은 4성 계급이 엄연한 인도에서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출가자로 받아들였다. 교단 안에서의 서열은 오직 출가 순서뿐이었다. 천민 계급이었던 이발사 우발리는 10대 제자가 돼서 부처님 열반 후 가르침을 모으는 자리에서 생활 규범을 주도적으로 정리했다. 심지어 살인자인 앙굴리말라까지도 출가 수행자가 되어 아라한과를 얻었다.

드라마 '은애하는 도적님아'는 '도적님'과 '은애'라는 단어를 통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진중하게 대변하고 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현대사회, 홍길동이 그토록 꿈꾸었던 율도국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나부터, 공명정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은애하는 어느 님아'는 누구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